
		<b>보도참고자료</b>		
		배포일시	2022. 3. 22.(화) / 총 3매(본문3)	
담당부서	주거복지지원과	담당자	• 과장 이중기, 사무관 이미래, 주무관 김병덕 • ☎ (044) 201-4479, 4535	
공동배포	강원도 재난복구과	담당자	• 과장 전광표, 사무관 조은아 • ☎ (033) 249-3650, 3646	
	경상북도 울진군 열린민원과	담당자	• 과장 엄기연, 주무관 배경환 • ☎ (054) 789-6043, 6650	
	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	담당자	• 차장 김명관, 부장 이흥현, 차장 노동일 • ☎ (055) 922-3301, 3307	
	주택도시보증공사 홍보실	담당자	• 팀장 이주연 • ☎ (051) 955-5621	
	직방	담당자	• 차장 윤정혜 • ☎ (02) 568-4909	
	부영그룹	담당자	• 차장 서동혁 • ☎ (02) 3774-5759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## 민-관 협력을 통해 경북·강원 산불피해 이재민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.

**- 입주자 선정 시 즉시 입주... 임대료 부담 없이 2년간 거주가능 -**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이번 경상북도·강원도 산불피해 이재민의 조속한 주거안정을 위해 강원도(도지사 최문순), 울진군(군수 전찬걸), 한국토지주택공사(사장 김현준, 이하 'LH'), 주택도시보증공사(사장 권형택, 이하 'HUG'), 직방(대표 안성우), 부영그룹(대표 신명호)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임대주택\*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.

\* 「공공주택특별법」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따라 「재해구호법」 상 이재민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임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가능

○ 국토부와 LH는 피해지역 인근에 위치한 입주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여 신속히 지원하고, 이재민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임대료를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.

- 아울러, 직방·부영그룹은 민간 임대주택 확보를 지원하고, HUG는 기부금을 통해 주거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.
- 이재민이 공공임대주택에 빠르게 입주할 수 있도록 LH와 강원도·울진군은 긴급지원주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, 이후 입주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.
  - \* LH-강원도 협약체결(3.21), LH-울진군 협약체결 예정(3.23, 잠정)
- 협약에 따르면, 2년간 LH에서 보증금을 면제하고, 월 임대료도 50% 감면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, 잔여 임대료는 강원도와 울진군에서 부담한다.
- 입주대상은 자가·임차 구분 없이 피해를 입은 주택에 거주했던 이재민으로서 시·군에서 주거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가구이다.
- LH가 이번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우선 확보한 건설·매입임대주택 30세대(강릉 18세대, 동해 12세대)는 청소 등 입주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해당 시·군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.
- 이와 함께, 이재민이 희망하는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\*도 입주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.
  - \* 입주대상자가 물색해 온 전세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
- 전세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①현행과 같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아서 LH에 계약을 요청하거나, ②LH에서 미리 확보한 주택 중에서 원하는 주택을 골라 입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.
- 다만, 주거지원이 시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직방에서 인력 파견 등을 통해 전세주택 물색을 지원하고, 부영그룹은 강릉·동해시에 위치한 부영아파트 300호를 전세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.

○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특별공급기준에 따라 보증금 지원한도를 현행 6천만원(기타지역 기준)에서 1억2천만원(수도권 기준)으로 상향한다.

□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현장에 설치된 LH 긴급주거지원팀\*으로 신청하여 입주절차를 진행하면 된다.

\* 긴급지원주택 입주신청 및 절차문의처

- (동해·강릉·삼척) 강원 LH 긴급주거지원팀(동해시청 1층) ☎ 033-530-2020

- (울진) 경북 LH 긴급주거지원팀(울진연호문화센터 1층) ☎ 054-782-2888

□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“이재민들께서 안정된 주거 공간으로 이주하시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”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이미래 사무관(☎ 044-201-447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